사찰 북카페, 지역 쉼터로 각광

모든 것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사찰이라는 신행 · 수행 공간도 마찬가지다. 바야흐로 문화의 시대, 사찰에도 문화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편안하고 아늑한 인테리어로 공간을 꾸미고 읽을거리와 마실거리 등을 제공해 누구나 쉽게 사찰을 접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변모한 것이다. 문화로 내 마음을 치유하고 쉬어가는 곳, 이제 사찰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백천사 주지 무구 스님이 경내 도서관에서 지역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다. 사진=김주일 기자

어린이 함께하니 사찰에 '웃음꽃'

백천사 어린이 도서관 카페

2011년 어린이 도서관 조성
리사이클링으로 도서를 구비
인근 지역 가족들 발길 잦아

경기 남양주 백천사(주지 무구)에는 이색 문화공간이 많다. 찜질방도 눈길을 끌지만 가장 한눈에 들어오는 것은 연못 위에 한옥 정자 형태로 조성된 어린이 · 가족을 위한 공간인 도서관이다.

2011년 만들어진 백천사의 도서관은 오롯이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해 지어졌다. 작은 공간이지만 어린이 도서를 포함해 2천여 권의 책이 비치돼 있다.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도서관 외관에서도 드러난다. 어린이들이 좋아만한 울라프, 뽀로로, 라바 등이 익살스럽게 탱화처럼 조성돼 있다.

주지 무구 스님이 도서관을 만들어야겠다고 원력을 세운 것은 지역 주민이나 신도들이 처분하기 어려워하는 항아리, 옛 물건을 받아 안았고, 최근에 들어서는 서적들도 받기 시작했다. 그렇게 리사이클링해 모인 책들을 활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도서관 건립 불사를 진행했다.

무구 스님은 "아무래도 사찰은 어른들을 위한 공간이라 아이들이 오면 지루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가족들이 와도 아이들 때문에 어른들은 법회에 집중하기 어렵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서관은 지역 사찰의 사랑방, 책방 역할을 톡톡히 한다. 어린이 도서 외에 일반도서들은 신도라면은 누구나 대여해갈 수 있다. 도서 출납 장부를 적지도 않는다. 그냥 스님에게 인사하고 이 책을 빌려가겠다고 하면 한정 없이 빌려준다. 지역 사찰만의 정감나는 풍경이다.

이날 자녀와 사찰에 들려 <여인실록> 등을 대여해간 김순진(33, 경기 남양주시) 씨는 "보통 사찰에 가면 불서 위주로 비치돼 있어 손이 잘 가지 않게 된다. 소설을 좋아해서 백천사 도서관에 비치된 소설이 있으면 빌려서 읽는다"면서 "아이와 놀 수 있고, 책도 대여가 가능하다는 점이 백천사 도서관이 가지는 장점이다. 사찰에 이 같은 공간이 많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백천사는 어린이 도서를 더 확보해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도서관을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무구 스님은 "사찰 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책을 계속 기증받고 있다. 불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천사 어린이 도서관 전경.

인터뷰 – 백천사 주지 무구 스님

"'가족 종교 승계' 위해 어린이 포교 중요"

경기 남양주 백천사는 사실 사세가 크지 않다. 그래도 백천사는 주지 무구 스님의 원력에 따라 매년 어린이날 여름 수련회를 열고 지역 어린이들을 불교로 이끌기 위해 노력한다. 어린이날 행사에서는 주지 스님과 함께 짜장면을 만들어 먹고 아이들을 위해 만든 잔디 위에서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된다.

여름 방학을 이용해 매년 7월 열리는 수련회는 오로지 '놀이'다. 가뜩이나 학원에 쫓기며 힘든 아이들이 굳이 사찰에 와서 까지 공부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함께 사찰 인근 도랑에 물장난하고 성불도 놀이 등 게임을 하며 몸으로 노는 것이 백천사 어린이 여름 수련회의 전부다. 인기도 좋다. 지난해에는 70명 정원이었으나 지원자가 넘쳐났다. 올해에는 한부모 가정 어린이를 위해 수련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도 중에는 아이들 공부시키면 수련회 안 보내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아이들은 자연과 놀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도서관, 여름 수련회 등 어린이 포교에 열심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무구 스님의 대답은 명료했다. "아이들이 절에 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요즘 사찰을 가면 고령화가 심각해요. 어린이 포교가 잘 안되는 것도 있지만, 신도들도 자녀들을 사찰에 보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가족 간 종교 승계'가 중요해집니다. 제가 어린이들을 사찰에 모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불교 신행이 가족 안에서 대물림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찰과 카페의 '콜라보' 문화와 신행이 만나다

부산 복합문화공간 쿠무다

부산 송정에 위치한 북카페 쿠무다는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다. 경남 함양 대운사(주지 주석) 부산불교학당에서 '문화포교'를 위해 개원, 1층 카페와 2층 법당으로 이루어진 복합문화공간이다. '수련'이라는 의미를 지닌 쿠무다는 토크콘서트 및 북콘서트, 무료전시 등이 활발히 진행되며 설립 1년 만에 지역 대안 문화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카페를 설립한 주석 스님은 누구나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카페 쿠무다를 열게 되었다. 현대식 북카페로 꾸며진 1층 카페는 전혀 불교색을 띠고 있지 않지만 차를 마시러 온 손님들이 직접 커피를 로스팅하는 스님을 보며 자연스럽게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복합 문화공간을 지향하는 쿠무다는 무명 작가들을 위한 무료대관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올해 전시 일정 역시 꽉 차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쿠무다 외경

독서하고 차도 마시고 광주 직장인들의 휴식처

무각사 '문화공간 로터스'

광주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무각사(주지 청학)는 인근 직장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휴식처다.

무각사 문화관 1층에 위치하고 있는 로터스 북카페는 문화관의 꽃이다. 이곳에서는 불교서적뿐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명상서적 500여 권과 인문학 서적과 타 종교의 서적을 비롯한 명상음악을 갖췄으며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도 전통차와 커피를 즐길 수 있는 테라스가 마련돼 있다.

뿐만 아니라 무각사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무각사 '로터스'의 모습

수제 전통차가 일품인 지역 주민들의 지대방

국제선센터 북카페 '수다원(修茶園)'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주지 탄웅) 1층 로비에 자리하고 있는 북카페 수다원(修茶園)은 사찰의 지대방이자 지역의 응접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매일 평균 100~200명의 불자와 지역주민들이 수다원에 차를 마시기 위해 다녀간다. 인근 성당 수녀님들도 찾을 정도다. 학교 앞에 위치해 가끔 학생들이 몰려와 차를 마시거나 조용히 앉아 문제집을 풀다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가격도 1~2천원 수준으로 저렴한 것도 인기의 요인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맛과 품질이 낮은 수준은 아니다. 2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대추, 유자차 등 전통차를 담가 내놓고 있어, 저렴한 가격의 더치(Dutch) 커피와 깊고 신선한 차 맛은 입소문을 타고 있다.

국제선센터 수다원 전경

편안하게 쉬면서 교리를 배우는 곳

금륜사 '다륜북카페(茶輪Book Cafe)'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금륜사(주지 본각)는 민족 문화유산 서오릉과 연계돼 종교와 문화, 예술, 그리고 만남과 휴식의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금륜사 1층에는 차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다륜북카페'가, 2층에는 법당이 있다.

다륜북카페는 관상용 보리수나무, 고무나무, 떡갈나무 등으로 꾸며져 아담한 온실 같다. 이곳에 신도들이 보시한 책들과 예술가들이 기증한 도예작품들이 곳곳에 놓여있다.

카페에서는 신도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차를 판매하고 있다. 찻값이 적힌 메뉴판은 있지만 계산대와 돈을 받는 사람이 따로 없다. 카페 한쪽에 놓인 보시함에 넣을 만큼 넣으면 된다.

금륜사 북카페 '다륜' 전경